



월급쟁이는 봉...급여는 쥐꼬리, 세금은 눈덩이

8년간 급여 29%, 근소세 60% 상승
소득 대비 세금 급증 '서러운 유리지갑'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자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리지갑'(봉급 내역이 투명하다는 뜻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급속도로 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이었다. 2008년과 견줘 총급여는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받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

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만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적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6일

코스피지수	2480.05	▲	+6.43
코스닥지수	659.41	▼	-3.67
日 낮케이 지수	2만1255.56	▲	+100.38
중 상하이 종합	3378.47	▼	-12.0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27	▲	+0.011
환율 (원·달러)	1127.8	▼	-1.1
국내금값 (원/그램)	4만7281.94	▲	+271.25

오늘의 얼굴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종선임



KB국민은행은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허인(57·사진) 내정자를 제7대 은행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회장 연이 이 회장된 윤종규 회장의 재임기 시작에 맞춰 11월21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KB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11월 윤종규 KB금융 회장 취임 이후 회장-행장 겸임 체제에서 3년여만에 회장-행장 분리 경영체제로 접어들다. 허 행장은 서울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나와 1988년 장기신용은행에 입행했고 1998년 국민은행과 합병하면서 KB에 몸담게 됐다. 이후 국민은행에서 영업그룹대표와 경영기획그룹대표(CFO) 등을 역임하면서 은행 전략과 재무, 여신심사, 기업금융, 영업, 전산(IT) 등 주요 핵심직무를 수행해왔다. 다양한 은행 업무를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 영업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임직원들을 응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니지'처럼...IP 모바일게임 대세몰이

아키에이지 비긴즈·테라M 출시 초읽기
라그나로크·아크로드 등 시장공략 준비



지적재산권(IP) 모바일게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리니지'에 이어 인기 PC온라인게임의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제작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게임빌의 '아키에이지 비긴즈'다. 25일 출시를 앞둔 이 게임은 지금도 64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이다.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는 11월 출시 예정인 넷마블게임즈의 '테라M'이다. 국내를 넘어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2500만명이 즐긴



게임빌의 '아키에이지 비긴즈'(왼쪽)와 웹젠의 '아크로드 어웨이크' 등 인기 PC온라인게임의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제작이 이어지고 있다. 블루홀의 '테라'를 기반한 게임이다. 사전예약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만큼 유저들의 관심이 크다. 최근 상장한 펠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도 연내 출시 예정이다. 원작인 '검은사막'은 누적 가입자수 765만, 누적 판매액 3400억원에 이르는 글로벌 게임이다. 특히

MMORPG'도 국내 서비스 예정이다.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회원 5900만명, 동시접속자 100만명, 누적 매출 1조원 등 전 세계 약 80여 지역에서 인기를 끈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모바일 버전은 이미 올해 초 중국에서 '선경전설R0'라는 이름으로 정식서비스를 시작해 인기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비공개테스트를 한 카카오의 '그랜드체이스 for kakao'도 있다. 지난 2003년 출시한 뒤 12년간 전 세계 1800만 게이머들이 이용한 '그랜드체이스'의 정식 후속작이다. 개발사 KOG가 원작 PC온라인게임 개발을 투입해 제작하고 있다. 웹젠의 모바일게임 '아크로드 어웨이크'는 17일부터 22일까지 오픈형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웹젠의 PC온라인게임 '아크로드'의 IP를 차용한 모바일게임이다. 특히 국내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을 열었던 '뮤 오리진'의 개발사인 천마시공과 웹젠의 두번째 공동제작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치타·점핑로봇...생활환경지능 로봇시대 열린다

네이버, 연구 중인 로봇 9종 공개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법인 네이버랩스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DEVVIEW 2017'에서 생활환경지능 기반 로봇 9종을 공개했다. 생활환경지능은 기술이 사람과 상황, 환경을 인지하고 이해에 필요한 정보나 행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네이버가 공개한 로봇은 자율주행 실내 지도 제작 로봇 'M1'과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어라운드'(사진)를 포함해 전동카트 '에어카트', 세계 최초 4륜 밸런싱 전동 스케이트보드 '퍼스널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코리아텍과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로봇팔 '엠비맥스', MIT와 산학협력한 '치타로봇', UIUC와 산학협력한 '점핑 로봇', 계단을 올라가는 바퀴 달린 로봇 '티스크로봇', 물체를 인식하고 자율주행하



는 'TT-bot' 등이다. 이중 어라운드와 에어카트는 부산에 위치한 오프라인 서점에 실제 도입했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송창현 네이버 최고기술경영자(CTO) 겸 CEO는 "인간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로봇을 목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공간에서 도움을 주는 로봇을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16일부터 새 브라우저 '웨일'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12월엔 모바일 버전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치 측위에 특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기'도 처음 선보였다. 김명근 기자



이승엽이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이승엽 은퇴기념 전시회'에서 어린이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이파크몰

'이승엽 은퇴기념 전시회' 아이파크몰로 오세요

600호런 야구공, 1000타점 베트 전시
은퇴 기념품·친필 사인 베트 등 판매

서울 용산 소재 아이파크몰이 29일까지 패션관 6층에서 '이승엽 은퇴기념 전시회'를 연다. 이승엽이 사용했던 베트와 글러브, 유니폼 등 야구 인생을 함께한 60여점의 물품을 선보인다. 100호런, 600호런 야구공과 1000타점 베트 등 사료적 가치를 지닌 기념품과 함께 각 구단에서 은퇴하는 이승엽에게 선물할 물품도 공개된다. 은퇴 기념품 판매는 덩이다. 야구베트, 크리

스탈 베트, 야구공 세트, 크리스털 공 등으로 구성됐으며 품목별로 한정수량 판매된다. 야구 베트에는 이승엽 친필 사인과 한정수량을 나타내는 번호가 새겨져 있다. 구매 고객 중 150명을 추첨해 21일 아이파크몰에서 열리는 이승엽 팬 사인회에 초청할 예정이다. 흥성일 현대아이파크몰 패션잡화점장은 "외국에는 마이클 조던과 같은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를 브랜드화한 상품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스포츠 용품이 활발히 거래된다"며 "국내에서도 스포츠 콜렉션 시장이 커지면 야구와 축구 등 프로 스포츠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비비고, 미국 전역에 '한식의 맛' 알린다

CJ제일제당 한식 브랜드 현지 TV광고
전세계 확대 예정...글로벌 K-푸드 앞장



CJ제일제당 비비고 브랜드 광고 이미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대표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19일부터 미국에서 비비고의 TV 광고를 선보인다. 그동안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광고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위주였다. 한식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광고가 미국 전역에 방영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비비고 광고는 편리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건강함도 챙길 수 있다는 한식의 특징을 강조했으며, 한식은 요리하기 어렵고 익숙하지 않다는 인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J제일제당은 이번엔 선보이는 광고를 기점으로 향후 국가와 지역을 확대해 전 세계에 비비고를 알릴 예정이다. TV 광고와 'THE CJ CUP' 중계를 통해 비비고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고, 이와 동시에 한식의 우수성을 함께 알려 한식 세계화에 앞장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본부장 손은경 상무는 "진정한 한식 글로벌화는 한국의 식문화가 전세계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이채현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비비고를 앞세워 전 세계에 K-FOOD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맥도날드, '오리엔탈 치킨버거' 프로모션
맥도날드는 인기 메뉴인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버거' 세트 메뉴를 하루 종일 런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16일 밝혔다. 한정판에 메뉴로 선보였던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버거는 소비자들의 호평에 힘입

어 올해 5월 정식 메뉴에 올랐다. 프로모션은 10월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기존 6300원인 세트 메뉴를 런치 가격인 5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비즈 TALK TALK

- "대기업 계열의 흡수합병이 시장 장악하면서 갑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높은 수수료율, 정액 수수료 선납 요구 등 흡수합병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가 대기업 5개 흡수합병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최근 5년간 3.2조 원의 배임 피해가 발생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 "케이뱅크 인가 절차, 미흡한 부분 있었다. 개선 방안 강구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경제

